

# 담양군, 농촌협약으로 369억 투자 확보... 정주환경 대전환

## 2029년까지 농촌개발 본격 추진... 6개 지구 거점 중심 정주여건 개선 기대

담양군(군수 정철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며 향후 5년간 총 369억 원 규모의 농촌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지난 15일 서울 아모리스 역에서 열린 농촌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맺었다. 이날 행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전국 21개 협약 지자체장과 관계자 200여 명이 함께했다.

협약에 따라 담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문가 컨설팅 및 계획 보완 절차를 거쳐 2029년까지 국비 18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69억 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단일생활권 계획에 따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단계(무정면, 금성면, 월산면, 수북면), 2단계(봉산면, 대전면),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반룡리)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농촌개발사업은 각 지역의 보육·교육·문화·체육·보건·교통 등 다양

한 생활서비스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권별 맞춤형 인프라 개선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양군은 먼저 단기적으로(2025~2029년) 시급한 거점별 생활서비스 자족률을 높이고, 생활서비스 간 연계구조를 형성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어 중기(2030~2034년)에는 기능 거점별 특화 전략을 바탕으로 정주환경을 고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다움 회복을 통해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2035~2045년)는 담양읍을 중심으로 4개 권역 간 기능을 분화·연계해 거대 복합화 거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담양군 전역의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총 369억 원 규모의 투자는 개별 면 단위 사업을 넘어, 담양군 전체 정주기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역교통망, 생활문화시설, 교육·복지 인프라와 연계된 거점 중심 개발은 향후 담양형 농촌정책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반 정비를 넘어, 담양군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주민 주도의 정주환경을 구축하는 중요한 시작"이라며 "거점지역의 체계적 개발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담양에서 누리는 행복한 '담로장생'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촌협약'은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정부(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농촌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2020년부터 도입됐다.

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 수립한 농촌공간전략계획을 바탕으로 단일생활권 중심의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비를 포함한 공동 투자가 이뤄진다.



영암군진로진학센터,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적성검사  
영암초 이어 6월 영암여고·대불초서 맞춤형 진로 탐색 도와

영암군진로진학지원센터가 13일 영암초를 시작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적성검사 프로그램' 실시에 들어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초·중·고등학생의 접근성·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현장 방문 방식으로 기획·진행된다.

주요 검사 항목은 △학과계열 선정 검사 △진로탐색검사 △자기주도 학습습관 검사 △MBTI/진로유형검사 △에니어그램 등이다.

프로그램 참여한 학생들은 진로적성검사 도구 활용 검사 후, 전문상담사의 해석 특강을 받으며 자기에게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고 있다.

6월에는 영암여고, 대불초에서 진로적성검사가 예정돼 있고, 학령별 맞춤형 진로지원은 지속된다.

노재영 영암군 인제육성체육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적성검사를 넘어, 학생 개개인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 방법 개선과 진로 설계를 위한 맞춤형 상담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영암군 진로진학지원센터는 1:1 맞춤형 컨설팅, 미래 우수 진로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강진군이 지난 15일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2025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SA 등급(최우수)'을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군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 온 결과로, 강진군의 공약 실천에 대한 의지와 군정의 신뢰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의미있는 성과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차 홈페이지 공개자료 평가

### 강진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 달성 민선8기 군민과의 약속 이행, 신뢰와 소통의 군정 실현

와 2차 공약이행 자료검증을 통해 ▲공약의 추진율 ▲2024년 목표 달성도 ▲주민과의 소통 분야 ▲웹 소통 정도 ▲최초 공약과의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진행됐다.

강진군은 민선8기 공약 추진율이 74.4%로 전국 평균 추진율인 53%를 크게 상회했다. 2024년의 목표 달성률 역시 전국 평균(92.5%)보다 5%포인트 높은 97.5%를 기록하며 공약 실천 의지를 여실히 입증했다. 또한 공약 이행 상황을 다양한 방식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공약 실천계획서와 공약 이행계획은 물론 세부 추진현황과 공약 조정 사유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군정의 신뢰성과 소통 능력을 인정받았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민선8기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강진군의 모든 공직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해 우수 등급에 이어 올해 최우수 등급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제15회 곡성세계장미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5일 전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행안부, 전남도, 곡성경찰서, 곡성소방서, 곡성군 안전관리지원단 등 10개 유관기관·단체가 실시하였다.

이날 유관기관 합동점검회의에서는 행사계획의 적정성,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 조치 계획, 행사장 질서유지 등 안전관리

### 곡성군, 제15회 곡성세계장미축제 유관기관 합동점검

대책 전반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관계기관별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점검 결과 축제장 안전·시설·질서 분야 등에서 철저히 준비된 것으로 판단되며, 유관기관과 안전요원 배치계획 공유 필요, 분야별 안전요원에 대한 정확한 임무(통일된 복장, 호루라기, 경광봉 등) 및

안전관리와 종합상황실 운영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하기로 논의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 추진과 함께 행사 운영요원 안전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해 곡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행사에 참여하고 성공적인 축제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전남 합평군 해보면이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전남 영암군과 영광군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에 나섰다.

합평군은 16일 '해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주)가 지난 14일 추진위원과 면 관계자, 나비골농협 및 합평군정 관계자 등 20여 명과 함께 전남 영암군과 영광군이 운영 중인 이

### 합평군, 해보면,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선진지 견학

동장터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는 합평군, 나비골농협, 주민위원회가 협력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주민 참여형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사업으로,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대상으로 3.5톤 규모의

이동 차량을 활용해 생필품을 판매·배달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합평군을 포함한 전국 5개 시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1차 시범지구로 참여한다.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합평군은 농촌 지역의 식품 사막 해소와 교통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한 이동식 생필품 판매·배달 서비스 운영 모델을 살펴보고 주민 주도형 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견학을 추진했다. 참가자들은 영암농협의 '기찬장터'와 영광군 '동락점빵'을 방문해 차량 운영 방식과 수익 모델, 동체 중심의 복합 서비스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하며 가가호호 이동장터 운영 전략을 논의했다.

### 장성군, 3년 연속 공약 이행 '우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A등급'

장성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에이(A)'를 획득했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우수 평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올해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과 정보공개 전반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공약이행 완료 △2024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web) 소통 △공약 일치도 등 분야별 평가에서 총점 83점 이상을 달성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수 등급을 부여했다.

장성군은 △효도권 증액 및 사용처 확대 △8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장애인 지원 △대학생 등록금 지원 △청소년수당 지급 △초·중·고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등의 공약을 완료해 주목받았다.

공약 이행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돋보였다. 장성군은 분기별 공약 이행 점검 결과를 누리집에 게재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공약은 장성발전의 청사진이자 설계도"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공약 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